

오스만의 파리시 도심녹지시스템*

: 그 효용성과 녹지정책의 논리

견진현

동서대학교 건설공학부

Hausmann's Urban Green Space System in Paris : The Efficacities and the Logic of the Green Politics

Kyonne, Jin-Hyun

Faculty of Construction Engineering, Dongseo University

ABSTRACT

The urban park provides a safe rest and leisure area, and offers the beauty of nature to counter the dreariness of urban space. It can provide benefits such as the reduc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the regulation of the local climate, and it can also provide a safe area during times of disaster. However, there was no interest in urban park development and control in Korea during the economic boom of the mid 1960s. Furthermore,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process, the population grew significantly in the cities and the cities' scales were noticeably extended; as a result of this, the living environment and the natural environment in the cities worsened.

With rapid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urban green area diminished, and it became necessary to organize the urban park system to improve quality of life. 45% of south korea's population lives in 6 cities, which is only 4% of Korea's land size. The Urban park system has to be considered in the urban planning process. Paris' urban green system can be a role-model for Korea's urban green development plan to function organically.

Urban public park concepts have been used in Paris's urban planning since 1850. There were hardly any parks, gardens and squares for the public before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For improving life-styles for the poor, Napoleon III strongly supported the development of green space systems in Paris by G.E. Haussmann. Napoleon III and Haussmann established and applied the urban green regulation within Paris urban plann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green regulations Haussmann's Paris urban plan and urban green space system: and as a result of this, it can be an indicator for urban green space development in Korea.

* 이 연구는 2003년도 동서대학교 일반연구지원으로 수행됨.

† **Corresponding author** : Jin-Hyun Kyonne, Faculty of Construction Engineering, Dongseo University, Busan 617-716, Korea. Tel. : +82-51-320-1823, E-mail : kyonne@dongseo.ac.kr

Key Words : Green Politique of Napoleon III, Haussmann's Urban Green Regulation, Classification of Green Space, Connexion to Circulation System

1. 서론

1. 연구의 의의

도시에 있어 도심공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대 도시의 경쟁력을 비교할 때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척도 중 하나는 그 도시에 공원이 얼마나 풍부하며 시민들이 공원을 얼마나 쉽게 접할 수 있는가이다. 도심공원은 도시민에게 안전한 휴식과 놀이의 장소가 되고, 시각적으로 삭막한 도시공간을 중화시켜 주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제공한다. 그 외에도 공해의 저감, 국지적 기후의 조절, 각종 재해의 방지 및 완화 등 공원이 제공하는 혜택은 다양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고도 경제성장기간 동안 도심공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오히려 고도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로의 인구집중이 심화되고 도시 규모도 외연부로 대폭 확장됨으로써 도시의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은 더욱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급격한 도시화와 공업화로 인해 도시지역의 녹지공간은 줄어들었으며, 특히 전국 인구의 약 45%가 국토면적의 4% 밖에 되지 않는 6대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인구 3만 이상의 도시를 포함할 경우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김용하, 1997)에서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심공원의 체계가 필요하다. 나아가 도심공원의 체계는 각 공원들의 위치나 규모, 디자인 등 설치 내용이 도로나 건물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도시계획 안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미 19세기 중반의 도시의 계획화(Régularisation)¹⁾를 통해 구축한 파리시 도심녹지의 체계는 극심한 도시화 속에서 시민생활과 유기적으로 기능하는 도심녹지를 정비해야 하는 우리나라 대도시의 도심녹지 계획을 위한 시사적 예가 될 수 있다.

2. 오스만의 파리시 대개조와 영향에 따른 연구목적

산업혁명 후 근대적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유럽도시의 혼란과 무질서를 극복하기 위한 제안들이 활발히 전개된 것은 도시계획사적 사실이다. 쇼에(F. Choay)의 견해에 따르면 이 시기 도시계획의 제안은 크게 이상도시론(Pre Urbanism)과 이상도시의 실천(Urbanism) 그리고 규획화(Regulation)의 형태로 나타난다(이명규, 1996). 그리고 오스만의 파리시 개조는 규획화를 가장 체계적으로 실행한 예증으로 동시대 유럽 도시들의 모델로 기여하였다.

오스만의 프로젝트는 현상분석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세느현 지사로 임명되자 우선 도시 전체에 대한 상세하고도 정확한 조사를 하였다. 세밀한 분석에 기초해 오스만은 주로 도로의 순환시스템을 설계하고 도심녹지에 의한 통풍시스템을 조직하였으며 이 둘을 결합하여 파리시를 통일적으로 움직이는 유기체로 바꾸어 놓았다. 이를 위해 오스만은 파리 면적을 확장하고 도심부분을 과감히 절개하였다. 나아가 순환시스템과 통풍시스템의 통합적 확립을 통해 구도시지역과 확장지역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기능하는 도시질서를 이끌어내었다. 이같은 오스만계획에 의해 파리시가 새로운 모습의 근대도시로 재탄생한 것은 도시계획사 속에서 잘 알려진 사실이다. 파리시 대개조의 영향이 가장 광범위하게 응용되었던 것은 유럽의 근대도시들이었다. 그러나 파리시와 비교하여 이 도시들이 통풍시스템의 확립측면과 유기적 기능성의 측면에서 파리와 같은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오스만 계획의 영향으로 독일에서는 1870년의 보불전쟁 이후 베를린과 뮌헨이 종합적으로 계획되었으며 드레스덴과 뮌헨이 부분적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독일 도시들의 경우 대부분이 고고학과 역사의 연구를 점차 강조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고집스런 과거의 도시구조에 걸도는 순환과 통풍의 시스템을 첨가한 모습으로 남았다.

스페인에서는 세르다(I. Cerda)의 바르셀로나 계획이 도시확장을 위해 실현되었다. 세르다의 계획은 거대한 바둑판의 패턴과 구시가지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순환시스템의 확립을 피하였다. 그러나 구시가지와 계획지역을 동시에 해결하는 순환시스템에 대한 대안은 결국 나오지 않았다²⁾.

1909년 번햄(D. Burnham)과 베네트(E. Bennette)의 시카고 계획은 미국의 도시를 계획화한 최초의 계획이다. 그러나 계획화의 결과는 워싱턴 DC의 바로크적 전통이 낳은 격자형의 가로패턴을 광장중심에서 뺀 방사선의 도로로 통합시키는 정도에 머물렀다. 여기서 통풍시스템은 도시를 둘러싸고 있을 뿐 도심내에서 순환시스템과 연계한 기능성을 보여주는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³⁾.

위와 같이 오스만계획에 영향받은 도시들은 혼돈되고 잠재된 질서 위에 순환시스템과 통풍시스템으로 대표되는 레이아웃을 설치하여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려 시도하였으나 두 시스템의 연합적 기능에서 파리와 같은 성공을 이루지 못한 것이 도시계획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이다. 또한 이들 도시들에 대한 고찰이 주로 도시계획사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순환시스템에 관한 연구내용은 풍부한 반면 통풍시스템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찾아 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계획화에 성공한 오스만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어도 통풍시스템의 경우 도심녹지를 계층적으로 적용한 것은 정설이 되었으나 1.계층의 구성과 적용내용 2.순환시스템의 도시골격과의 상관관계 3.녹지시스템으로서의 효용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녹지계획사 속에서 새로운 작업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19세기 근대도시계획의 모델이 되었던 오스만의 파리시 도시개조의 내용중 통풍시스템 확립을 위한 파리시 녹지정책과 도심녹지체계 구축과정 그리고 순환시스템과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대도시의 녹지망조성을 위한 효용성과 녹지정책의 논리를 시사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시대적 범위는 파리시의 도시개발 역사 중 1850년에서 1870년 사이의 기간으로 한정했다. 이 시기에 나폴레옹 3세의 의지와 오스만의 시행에 따른 대대적인 파리시 대개조작업이 이루어 졌으며 이와함께 대

중을 위한 도심녹지공간간의 체계가 새롭게 정비되었다. 따라서 도심공원들에 대한 제안과 시행이 20년간의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파리시 도시계획에서 행해진 도심공원의 네트워크 구축과정을 명료하게 고찰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자료의 범위는 위 시기의 파리시 녹색공간정책을 주도한 나폴레옹 3세와 오스만 그리고 알팡(Adolf Alphand)의 도심녹지에 관한 생각을 밝혀주는 문헌적 자료와 도심녹지 시스템의 완성과정을 보여주는 지도적 자료를 연구자료로 삼는다.

위 자료들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19세기 중반 이후 유럽 주요 도시들에게 모델로 받아들여진 파리시 도심녹지개발에 대한 정책적 배경과 그 시스템의 구축과정을 고찰한다.

II. 나폴레옹 3세의 파리시 녹색공간 정책

피에르 르브당(Pierre Levedan)이 그의 저서 '파리의 새로운 역사'에 적은 것처럼 산업혁명 이후 파리시는 국가경제의 집중과 근로자 인구의 급속한 유입으로 인해 도시의 틀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요청에 직면해 있었다. 골목들은 좁고 배수가 되지 않아 비위생적이었고, 도처에서 행해진 도로의 확장, 상업과 산업활동의 증가로 인해 도심의 저소득층 인구는 근교로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었다. 도시 심장부는 상업 건물들이 빈터와 녹지공간을 점유하면서 고밀도로 집적화되었고 도심조직은 중심부에서부터 외곽으로 전원적 환경을 잠식하며 점점 확대되었다. 이 같은 도심성장으로 인해 파리시의 녹색공간은 점점 그 자리를 상실하였으며 그결과 19세기 초의 파리시는 위생과 순환에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병을 앓고 있었다(Levedan, 1975).

이런 상황에서 즉위한 제2제정의 나폴레옹 3세는 1850년 파리시청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는데 이후 실행될 오스만(George Eugène Haussmann)의 파리시 도시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 파리는 프랑스의 심장입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을 이 커다란 도시의 미화를 위해 쏟읍시다. 새로운 도로들을 열고, 신선한 공기가 걸핍된 과밀구역을 정화합시다. 그리고 우리들의 담장 안 어느 곳에서나 자연광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시다...”(Pinon, 1991).

위의 담화에서 '신선한 공기가 걸핍된 과밀구역의 정화'가 언급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나폴레옹 3세는 파리의 도시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모습의 근대도시로 재탄생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그가 말한 도시의 미화와 정화를 위한 노력은 곧 도심녹지시스템의 확립을 의미했다. 현재 파리의 주요 도심공원인 불로뉴(Boulogne)숲과 뱅센느(Vincennes)숲, 뷔트 드 쇼몽(Butte De Chaumont)공원, 몽수리(Montsouris)공원, 몽소(Monceaux)공원과 스퀘어(Square)라 불리는 도심 소공원들이 이루는 도심공원 체계는 이 시기의 녹색공간 개발의 산물이다. 특히 스퀘어는 이 시대의 녹색공간정책으로 인해 등장한 도시개발에 연계된 새로운 개념의 녹색공간이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를 위해 나폴레옹 3세는 다음의 내용으로 집약되는 녹색공간정책을 통해 도시의 도로순환체계에 상응하면서 한편으로 도시민들에게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근대적 도심녹지시스템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1. 도심속의 녹색오아시스 구현: 런던의 대중공원 이미지 도입

중세 이후 파리의 공원은 대부분 왕실이나 귀족, 승려계급 등 특정신분의 사람들에게만 출입이 허용된 장소였다. 예를 들면 툴리(Tuileries)공원은 저녁이 되어야야 문을 열었고 그 곳은 왕실과 귀족들만의 사교와 대화, 회합의 장이었다. 이러한 파리시 공원의 신분 배타적 성격은 19세기 초까지 이어졌다. 다시 말해 19세기 이전 파리의 공원에 있어서 '대중(public)'이나 '도심적(urban)'의 개념은 희박했다 볼 수 있다⁴⁾. 이처럼 공원에 대한 귀족적 전통이 오래 지속된 파리와 달리 런던에서는 일찍이 대중을 위한 도심공원이 발달하였다. 런던의 중심부에 거대한 규모로 자리잡은 하이드파크(Hyde Park)는 1635년에 이미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었

으며 세인트 제임스파크(Saint-James Park)와 리전트파크(Regent Park)의 일부가 1841년 개방되었다. 1847년에 팩스턴(Paxton)의 설계로 문을 연 버켄헤드파크(Birkenhead Park)는 런던시민들에게 양궁, 크리켓, 야외놀이와 함께 전원적 풍경을 제공함으로써 이후 런던의 도심공원들은 위생과 교육을 보장하는 도시의 사회공헌적 필수요소로 인식되었다(Beaujeu-Garnier, 1975).

1800년대 초 런던에는 이미 총 면적 4000 여 헥타르에 달하는 도심공원들이 도시 곳곳에 흩뿌려져 있었다.(Henard, 1909) 이 공원들은 높은 울타리와 그 앞의 무성한 나무들로 둘러쳐져 바로 인근의 건물들이 주는 도시적 이미지와 교통에 의한 소음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되었다. 또한 자연미를 강조한 영국식 조경이 주는 공원내 전원적 풍경은 런던시민들이 근교로 나가지 않고도 자신의 집에서 걸어 도달할 수 있는 도심속 전원을 제공하였다. 즉 런던의 대중 도심공원은 마치 사막의 중간 중간에서 푸르른 휴식을 제공하는 오아시스처럼 과밀한 도심지 속에서 시민들에게 사색과 레크리에



그림 1. 1860년대 런던과 파리의 도심지 도심공원분포 비교
자료 : Hénard, 1909: 66-67.

이선 그리고 상쾌한 공기를 주는 녹색오아시스의 역할을 하였다. 반면 파리의 경우 도심녹지는 런던과 비교할 때 규모와 밀도면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그림 1은 나폴레옹 3세와 오스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리시 대개조 작업이 끝난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도 파리의 도심녹지공간이 런던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젊은날의 망명시절을 런던에서 보낸 나폴레옹 3세에게 도심속에서 넉넉한 면적과 함께 녹색의 오아시스로 기능하는 런던 대중공원들의 아름다움과 이들이 이루는 푸르른 도시의 이미지는 파리시 개조에서 실현해야 할 대중도심공원의 모습과 이들이 형성할 녹지시스템에 대한 영감을 주었다. 집권 전부터 파리를 미려한 근대도시로 탈바꿈시킬 계획을 세워왔던 나폴레옹 3세에 의해 제2제정의 녹지공간정책은 런던을 모델 삼아 도심의 요소요소에 시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적 기능과 전원적 분위기를 제공하는 도심속 녹색 오아시스를 구현하는 것이었다(Racine, 2002).

나아가 이와 같은 녹지공간정책은 이 시기의 도심공원의 모습과 성격을 규정하였다. 그림 2의 몽소공원에

서 보듯 이 시대에 계획되거나 완성된 도심공원들은 공통적으로 미려하게 장식된 높은 울타리에 둘러싸여 주변 도시환경에 대해 격리된 도심 속의 오아시스의 형태를 갖고 있다. 또한 울타리 안은 자연적으로 가꾸어진 수목들과 그 사이로 난 구부러진 오솔길로 특징되는 영국식정원으로 가꾸어져 있음을 내부전경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런던의 이미지를 모델 삼아 파리시에 녹색오아시스를 구현하고자 의도한 나폴레옹 3세의 녹색공간정책이 이 시기 도심공원들의 배치적 성격과 내부공간 구성방법을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박애주의에 기초한 사회시설로서의 공원 창조: 스퀘어의 출현

나폴레옹 3세가 확립하고자 한 파리시의 도심녹지시스템이 단지 아름다운 도시미관만을 추구한 것은 아니었다. 박애주의 측면에서 그는 귀족과 극빈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의 시민들이 자신의 집으로부터 걸어서 신선한 공기와 자연에 도달할 수 있는 도심공원을 개발의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도시 빈곤층의 건강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이 시기 녹지공간 정책을 통해 실현될 숲과 공원들은 대중을 위한 사회시설이 되어야 했다고 오스만은 쓰고 있다(Haussmann, 1893).

이 정책으로 파리시에는 이 전에 볼 수 없었던 도심소공원인 스퀘어가 등장하게 된다. 원래 런던에서 발달한 스퀘어는 상류층의 집합주택인 테라스하우스의 거주자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야외휴식과 주차를 위해 구획된 공간으로서 지극히 사적, 배타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나폴레옹 3세는 이러한 런던의 스퀘어를 공공의 이익과 도심의 경관을 위한 녹색노드(node)로서 차용하였다. 파리의 스퀘어들은 도로교통망과 긴밀한 연계를 맺으며 파리의 도심에서 주거지역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흩뿌려져 주부, 아이들, 근로자 등 도시민을 구성하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그들의 집으로부터 걸어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한 일상적 소공원으로 계획되었다. 결과적으로 스퀘어는 일부러 시간을 내 파리시 외곽의 대규모 숲으로 이동해야 가능했던 파리시민들의 산책과 전원의 휴식을 일상에서 누리도록 하려는 이 시대 녹색공간정책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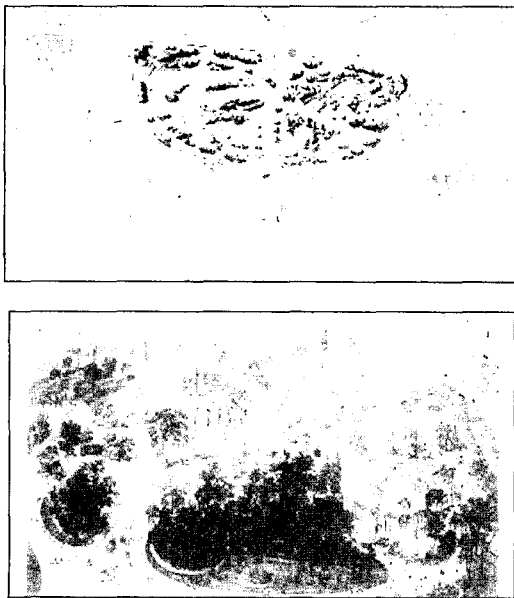


그림 2. 녹색오아시스로서의 주변에 대한 몽소공원 배치와 내부전경
자료 : Dupont, 1868: Gr B 26.

III. 오스만의 파리시 녹색공간 시스템 구축과정

오스만이 파리시 대개조를 위한 나폴레옹 3세의 오른팔이었다면 알팡은 파리시 도심녹지개발을 위한 오스만의 녹색팔이라 할 수 있다⁵⁾. 이들이 가진 비전의 폭은 황제를 능가하였다. 오스만과 알팡은 도심기능에 따라 엄격하게 분화된 녹지공간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기능할 뿐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전체적인 작동성을 갖기를 원했다. 이를 위해 채 20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 파리시의 녹지공간은 통합된 시스템을 향해서 완전히 재구성되었다. 이 기간에 두 개의 숲과 세 개의 중규모 공원 그리고 24개의 스퀘어와 다수의 광장 그리고 가로수거리들이 새로이 실현되었다. 표 1은 이 시기에 새로이 정비되었거나 신설된 파리시 도심녹지의 종류와 연대를 나타낸다.

표 1에서 보듯이 오스만은 500ha 이상의 거대 면적

표 1. 제2 제정시대 신설, 정비된 파리시 도심녹지

숲(500ha 이상)	도심공원(8ha-25ha)	도심 소공원(5ha 이하)
1858 불로뉴 숲	1861 몽소 공원	1856 투르 생 차크 스퀘어
1865 뱅센느 숲	1867 뷰트쇼몽 공원	1857 땀플 스퀘어
	1878 몽수리 공원	1859 이노상트 스퀘어
녹색광장	녹색대로	생 클로틸드 스퀘어
		루부아 스퀘어
		1860 뱅티밀 스퀘어
		라네랄프 스퀘어
		바티뇰 스퀘어
		1862 레위니옹 스퀘어
		몽루즈 스퀘어
		채플 스퀘어
	읍저바투아 대로	1863 쥬스비에브 스퀘어
		아르 메티에 스퀘어
말제르브 광장	황제의 대로	1864 몽틀롱 스퀘어
		1865 아작쇼 스퀘어
그르넬 광장	리샤드 르 누아 대로	산티아고 뒤 칠리 스퀘어
		루이 14세 스퀘어
		빅토르 스퀘어
		1866 앙발리드 스퀘어
		1867 트리니테 스퀘어
		라 보르드 스퀘어
		1868 몽즈 스퀘어
		1869 메나쥬 스퀘어
		노트르담 스퀘어

자료 : Alphand, 1873: 필자 재작성

에서 5ha 이하의 면적 이르는 다양한 규모의 녹지공간들을 역시 숲에서 광장에 이르는 다양한 모습으로 개발하였다. 오스만은 이렇게 분화된 녹지공간들을 각 도심기능에 부응하는 방법으로 적용하였으며 결합하여 통합적으로 기능하는 녹지시스템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도심녹지시스템의 구축은 계층적 적용, 순환시스템과의 연결로 요약되는 다음의 과정을 통해 완성되었다.

1. 계층적 적용(Classification)

오스만은 도심기능에 따라 엄격하게 분화되고 적용된 녹지공간의 개발을 고집하였고 이를 위해 파리시 각 도심의 스케일에 적합한 각각 다른 규모의 도심공원 창조를 계획하였다. 이로서 그는 파리시 서쪽에서 동쪽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평등한 밀도의 녹지공간을 제공하고자 의도하였다. 이러한 목적에서 그가 실현한 도심공원들은 이용적 규모와 기능에 따라 엄격하게 계층화되어 설치되었다. 이시기의 계층화 정책에 따라 실현된 도심공원들은 면적과 해당 도심규모에 따라 표 2와 같이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다.

1) 첫 번째 카테고리: 두 개의 녹색허파와 1차 골격

오스만은 파리의 서쪽과 동쪽외곽에 존재하고 있던 불로뉴 숲과 뱅센느 숲을 각각 확장하고 재개발함으로써 파리시 좌우의 허파로 기능하게 하였다. 1852년 나폴레옹 3세가 불로뉴 숲을 파리시에 기증하면서 오스만과 알팡에게 이 숲을 재개발할 책임이 주어졌다. 결과적으로 이 숲은 서쪽으로 센강에서 동쪽으로 당시의 파리시 성벽에 이르기까지 767ha에서 846ha로 확장되었으며 그 끝은 수목으로 무성한 폭 120m, 길이

표 2. 오스만 도심녹지의 계층적 분류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카테고리3	
규모	적용 도심녹지	규모	적용 도심녹지	규모	적용 도심녹지
100ha 이상의 숲	불로뉴 숲 뱅센느 숲	10ha 이상 100ha 이하 의 공원	뷰트쇼몽 공원 몽수리 공원 몽소 공원	5ha 이하 의 소 공원	24개의 스퀘어

자료 : Alphand, 1873: 필자 재작성

1.2km의 포슈 가(Avenue de Foche)로서 개선문 광장과 연결되었다. 이 숲의 성공적 재개발로 파리시 서쪽은 신선한 산소를 풍부하게 제공하며 시민들의 휴식과 위생을 보장하는 거대한 녹색허파를 장착하게 되었다.

곧이어 1860년부터 오스만은 파리시 동쪽끝에 위치한 뱅센느 숲을 875ha에서 901ha로 확장하고 4개의 호수와 공원의 각 부분을 연결하는 유연한 곡선의 오솔길들로 이루어진 영국식 양식으로 이 숲에 새로운 이미지를 주었다. 불로뉴 숲에 이은 뱅센느 숲의 재개발로 파리시의 서쪽끝은 또 하나의 녹색허파를 갖게 되었다. 그림 3은 도시의 동서 양단에 대규모의 숲으로 구성된 2개의 녹색허파가 결과적으로 오스만 도심녹지시스템의 1차적 골격을 형성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2) 두 번째 카테고리: 세개의 녹색 폴(Pole)과 2차 골격

파리시 동서 양단에 위치한 첫 번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불로뉴 숲과 뱅센느 숲으로 형성된 1차 골격위에 오스만은 파리시 동북, 서북쪽 그리고 남쪽의 도심지역에 두 번째 카테고리에 속하는 세 개의 중규모 도심공원을 첨가함으로써 네트워크의 2차 골격을 형성시켰다. 주목할 점은 이미 고밀도의 파리 도심지에 10ha가 넘는 면적을 도심공원으로 확보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이를위해 오스만은 도심의 거점에 위치하였으나 방치된 구역들을 정비하여 넓은 면적을 갖는 도심공원로 재 탄생시켰다.

오스만 도심녹지시스템의 2차 골격을 이룬 세 개의 공원 중 뷰트 드 쇼몽공원은 석회석 암반과 비교적 높

은 구릉의 난개발지역으로 방치되었던 파리시 동북부 벨빌지구(Quartier Belleville)에 실현되었다. 골곡이 심한 둔덕과 골과 골 사이의 길 등을 이용해 도심 속 야산이 주는 이미지의 총면적 25ha를 갖게된 이 공원을 완성함으로써 오스만은 파리시 도심녹지시스템의 동북부 노드를 확보하였다.

뷰트 드 쇼몽공원이 오스만이 계획한 파리시 도심녹지시스템의 동북부의 노드로 자리잡았다면 1861년 알팡의 지휘하에 영국식 공원으로 재개발된 몽소공원은 2차 골격의 서북부노드로서 계획되었다. 8.5ha의 공원 면적 중 절반은 잔디밭으로 다시 태어나 도시민들의 유희장소를 제공하였고 공원을 가로지르는 두 개의 산책로는 인근지역에서의 접근로와 연결되었다. 호수와 작은 계곡 그리고 이들을 이어주는 유연한 곡선의 오솔길들이 주는 영국식 공원의 이미지는 '도심 속 녹색 오아시스'의 이미지 실현'이라는 당시 녹색공간 정책의 결과이다.

위 공원들의 개발과 함께 1865년 오스만은 파리시 남쪽 몽수리 언덕에 15.84ha의 면적을 갖는 몽수리공원의 개발에 착수하였다. 이 공원은 중간에 철도가 지나가는 대지적 약점이 있었다. 알팡은 철도 주위를 무성한 나무로 가리며 양분된 공원의 동선을 산책로로 이어줌으로써 철도에 의한 시각적 물리적 단절을 극복하였다. 철도의 통과는 오히려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꾀한 당시의 녹지공간 정책에 부합하는 효과를 낳았다. 파리시 도심녹지시스템의 남부노드로 기능하게된 이 공원의 실현으로 파리시는 동북부와 서북부에 이어 남부에 녹색 폴(pole)을 구비하게 되어 역 삼각형의 중규모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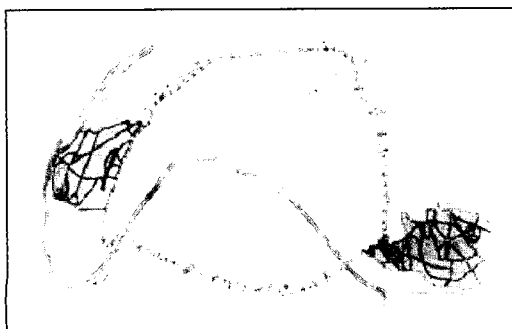


그림 3. 첫 번째 카테고리(두개의 숲)의 1차골격
자료 : Moncan, 1992: 필자 제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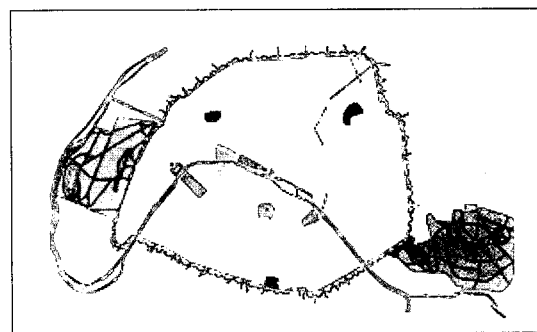


그림 4. 두 번째 카테고리(세개의 공원)의 2차골격
자료 : Moncan, 1992: 필자 제작성

심공원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이 공원들의 배치상태를 나타내는 그림 4와 같이 이 공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는 도시 중심부에 밀집된 기존의 녹지공간과 불로뉴 숲과 뱅센느 숲이 형성한 1차 골격사이의 녹지사각지대를 보완하는 2차 골격을 이루어 파리시는 1, 2차 골격만으로도 도시의 각지역이 비교적 균등한 녹지환경을 제공받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3) 세 번째 카테고리: 24개의 스퀘어와 3차 골격

앞에서 언급했듯이 오스만의 대개조작업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파리시의 스퀘어는 박애적 측면에서 도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나타난 도심 소공원이자,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스퀘어는 도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녹색살롱'⁶⁾으로서의 역할과 도시개발 요소로서의 기능적 측면에서 이시기 도심녹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적용대상으로 고려되었다. 오스만은 1856년과 1869년 사이기간 중 표 1에 나타난 총 24개의 스퀘어를 실현함에 있어 '모든 도시민들은 그들의 장소에서 500m 범위 내에 반드시 하나의 스퀘어를 가져야 한다'⁷⁾는 원칙을 세웠으며 이 원칙은 19세기 중반 이후 100년 동안의 번영을 누린 스퀘어의 배치계획에 주요 지침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도심녹지 시스템의 3차적 기능을 담당할 스퀘어 계획에 오스만이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은 도보에 의한 접근 가능성과 일상공원으로서의 기능이었다.

이러한 의도를 충족하기 위해 스퀘어들은 우선 기존 도심조직에서 토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했다. 이미 언급했듯이 18세기 중엽의 파리시는 도로와 건물이 이미 고밀도로 집적화 되어 녹지를 위한 토지를 확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용이한 토지확보를 위해 오스만은 파리시 곳곳에 산재하여 기능할 스퀘어들을 5ha 미만⁸⁾으로 계획하였고 이렇게 탄생한 스퀘어들은 이시기 도심녹지시스템의 세 번째 카테고리를 형성하는 도심소공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그림 5에서 보듯이 오스만은 도시내 일상공원의 균등한 밀도를 제공하기 위해 24개의 스퀘어들을 대규모 숲과 중규모의 도심공원들 사이의 녹지사각지역에 산재시켜 1, 2차 골격을 보완하는 녹지시스템의 3차 골격을 형성하였다.

4) 소결



그림 5. 세 번째 카테고리(24스퀘어)의 3차골격

자료 : Moncan, 1992: 필자 제작성



그림 6. 기존녹지와 1,2,3차골격이 형성한 녹지시스템

자료 : Moncan, 1992: 필자 제작성

결론적으로 20여년에 걸친 오스만의 도심녹지시스템은 상황적 필요에 따라 도심공원을 창조하거나 보완하는 순차적인 과정을 통해 형성되어간 연역적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전의 통합된 계획하에서 일련적이고 체계적으로 행해진 귀납적 방법으로 완성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앞의 고찰을 종합하면 오스만 도심녹지체계의 형성 과정은 도시외곽의 1차골격에서 도심부의 고밀한 3차골격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정밀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가장 처음 행해진 불로뉴 숲 재개발 이전에 오스만의 머릿 속에는 이미 파리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도심녹지시스템의 청사진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 통합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 오스만은 파리의 양단 녹색허파로 기능하는 거대한 숲에서부터 도심조직에 파고드는 세포적 규모의 스퀘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녹지공간들을 세 개의 카테고리로 계층화하여

도심녹지시스템의 골격들을 이루어 나갔다. 그리고 각 카테고리 의 도심녹지로 형성된 1, 2, 3차의 녹지골격은 순환시스템과의 연결을 통해 전체적이고도 유기적인 작동성을 갖는 파리시 도심녹지시스템으로 완성되었다.

2. 순환시스템(Circulation system)과의 연결을 통한 도심녹지시스템의 완성

1853년 이전의 파리시는 세느강을 기준으로 우완과 좌완이 병렬해 따로 기능하는 것을 최소한의 연결로 묶어 놓았을 뿐이었다. 파리의 양안을 하나로 묶기 위해 오스만계획의 주목적이 역과 역, 도시의 한 구역과 다른 한 구역을 이어주는 원활한 교통체계의 확립에 있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시기 실현되었던 주요 도심녹지들이 계획적으로 도로망에 의해 연결되고 있는 모습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1) 순환동맥과 도심녹지, 2 차 골격의 연결

새로운 교통망을 위해 설계된 주요 도로들은 도심녹지와 연결되어 지구와 공원, 공원과 공원사이를 이어줌으로써 녹지체계의 혈관과 같은 기능을 하였다. 이 혈관들은 도심녹지시스템을 이루는 대부분의 숲, 공원과 스퀘어들을 긴밀하게 연결하며 각 도심녹지로 파리시민들의 용이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림 7은 오스만의 기본순환망이 파리 동서 양단의 개선문 광장(Pl. Etoile)과 나씨옹 광장(Pl. Nation)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축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순환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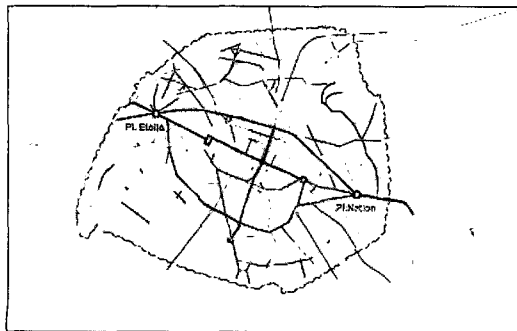


그림 7. 오스만의 교통순환시스템
자료 : Pinon, 1992 : 필자 제작성

도록 정비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8은 불로뉴숲, 뱅센느숲과 뉘트쇼몽공원, 몽소공원이 이루는 1, 2차 골격이 동서남북을 순환하는 그림 7의 기본순환망에 연결되어 도심녹지시스템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파리 내연부의 대부분을 지나치는 도로망이 파리 시민들을 10ha 이상의 각 도심공원으로 공급하는 순환동맥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처럼 1, 2차 골격으로 형성된 도심의 녹색기관(Organ)들은 순환동맥과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작동하는 연합적 생명력을 갖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몽소공원은 호슈가(Av. Hoche)와 연계되어 개선문 광장으로 연결되었다.(그림 9 참조) 또한 개선문광장에서 연결된 포슈가(Av. Foch)를 따라 시민들은 걸거나 마차를 타고 파리시 서쪽허파인 불로뉴숲으로 접근하게 되었다(그림 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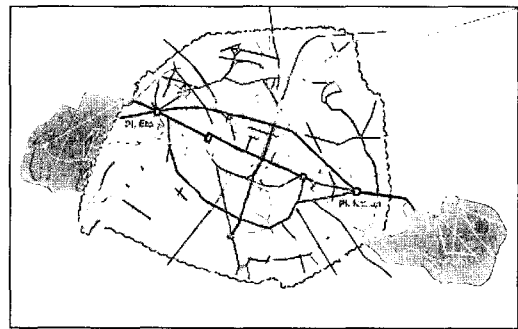


그림 8. 오스만의 교통순환시스템과 도심녹지 1, 2차 골격
자료 : Pinon, 1992 : 필자 제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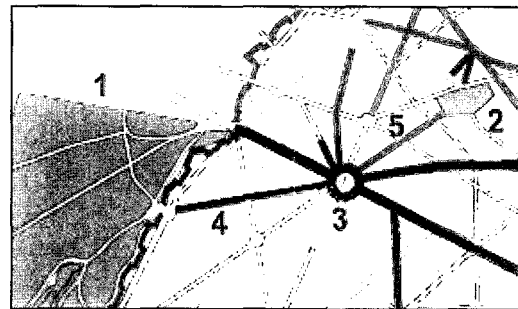


그림 9. 몽소공원과 불로뉴숲의 도로연계
그림 8의 필요부분 확대:
1. 불로뉴숲 2. 몽소공원 3. 개선문광장 4. 포슈가 5. 호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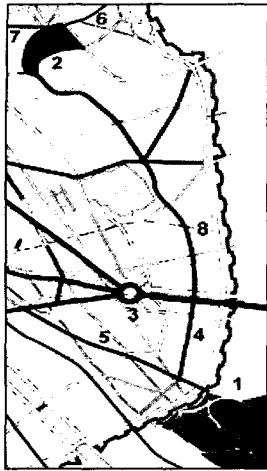


그림 10. 뷰트 쇼몽공원과 뱅센느숲의 도로연계

그림 8의 필요부분 확대:

- 1. 뱅센느숲 2. 뷰트 쇼몽공원 3. 나쉴옹광장 4. 픽퀴스거리
- 5. 도메닐가 6. 마넵거리 7. 볼리바거리 8. 피레네거리

파리 동부의 나쉴옹광장(Pl. Nation)에서 시작하여 픽퀴스거리(Rue Picpus)를 따라 바스티유광장(Pl. Bastilles)에서 출발한 도메닐가(Av. Daumesnil)와 연결되는 경로는 뱅센느숲으로 이어져 동부 파리시민들의 주말휴식을 풍부하게 하였다.(그림 10 참조) 또한 마넵거리(Rue Manin)와 시몬 볼리바거리(Rue Simon Bolivar)를 거쳐 피레네거리(Rue Pyrénées)와 연결된 일련의 도로들은 뷰트 쇼몽공원을 티에리성벽에서부터 뱅센느숲으로 연결하였다(그림 10 참조).

이처럼 순환동맥이 몽수리공원을 제외한⁹⁾ 1,2차 골격의 도심녹지를 모두 연결하고 있는 모습은 우연한 결과로 보기 어렵다. 이는 오스만의 도심녹지시스템이 선형적으로 순환시스템과 결합을 염두에 두고 계획되었으며 나아가 순환시스템과 연결되는 전제하에서 도시 골격을 정비하는 요소로 설정, 적용되었음을 의미한다.

2) 순환의 모세혈관과 연결되는 도심녹지 3차골격의 전략적 위치

순환시스템과의 연계는 스퀘어의 위치에서 더욱 명확히 나타난다. 오스만은 전략적으로 대부분의 스퀘어들을 순환동맥에서 파생된 간선도로들의 교차점 또는 주요기관과 사회간접시설에 연계해 배치하였다. 투르 생 자크 스퀘어(Sq. Tour St. Jacques)는 리블리거리와

(Rue Rivoli)와 세바스토폴대로(Bd. Sévastopol)로 구성된 파리중심의 남북을 교차하는 축의 결절점에 위치하였다.(그림 11 참조)

부시코스퀘어(Sq. Boucicaut)는 남부순환동맥에서 파생된 라스파일대로(Bd. Raspail)와 생 제르망대로(Bd. St. Germain)가 교차되는 지점에 배치되었고(그림 12 참조) 템플스퀘어(Sq. Temple)는 새로 개통된 브류타뉴거리(Rue Bretagne)에 면해 파리지 3구 구청 앞에 자리하는 식이었다. 이처럼 도심내연부에 흩뿌려진 24개의 스퀘어들은 대부분 전략적으로 순환동맥에서 파생된 모세혈관이 교차하는 지점이나 모세혈관에 면한 주요 건물 앞에 배치되었다. 간선도로의 교차지점과 주요 건물의 앞에 면한 지점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이들 지점에 자리한 소규모 도심공원의 효용은 도심 속의 휴식과 공원사용 빈도면에서 극대화됨을 예상할 수 있다. 이같은 배치분석을 통해 오스만이 의도적으로 순환의 모세혈관들이 교차하는 지점에 스퀘어들을 배치하여 도심 오아시스로서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창출한 사실을 밝힐 수 있다. 나아가 순환의 모세혈관과 이들이 제공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한 스퀘어와의 관계는 순환시스템과 통풍시스템의 연결망을 이루는 하부조직을 형성하여 앞에서 밝힌 순환동맥과 1, 2차 녹지골격의 연결을 보충하여 도시계획에 있어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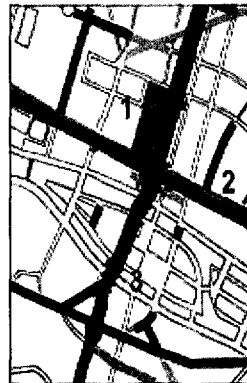


그림 11. 투르 생 자크 스퀘어의 배치

그림 8의 필요부분 확대:

- 1. 투르 생 자크 스퀘어
- 2. 리블리거리
- 3. 세바스토폴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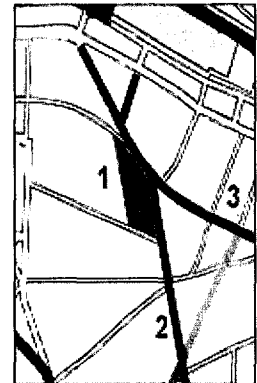


그림 12. 부시코스퀘어의 배치

그림 8의 필요부분 확대:

- 1. 부시코스퀘어
- 2. 라스파일대로
- 3. 생 제르망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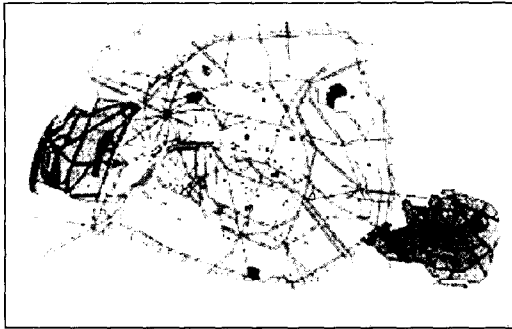


그림 13. 순환시스템에 의한 도심녹지시스템의 완성
자료 : Moncan, 1992: 필자 재작성

환시스템과 통풍시스템은 치밀하게 기능하는 연합체로 완성됨을 알 수 있다.

3) 소결

이와같이 오스만의 도시개발로 정비된 도로망은 도심녹지시스템을 연결하는 순환혈관의 역할을 하였다. 녹지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세 개의 카테고리 분화해 형성한 도심녹지시스템은 동시적으로 실행된 순환시스템과 연결됨으로써 도시전역을 포괄하는 생명력과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그림 13은 1, 2, 3차 골격에 해당하는 다양한 규모의 녹지들이 순환시스템이 제공한 혈관으로 연결되어 유기적인 작동성을 갖는 도심녹지시스템을 완성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IV. 결론

본 논문의 고찰에서 밝혀진 오스만의 도심녹지시스템의 구축과정을 요약하면 1. 도시의 경관과 도시민의 보건과 휴식을 위한 녹색오아시스정책의 수립 2. 도심녹지의 계층적 적용을 통한 체계적 녹지골격 형성 3. 순환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도심녹지시스템의 완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실현된 19세기 중반의 도심녹지시스템은 1977년의 파리의 신 도시계획(Nouvelle politique d'aménagement de Paris)에 의해 보장되어¹⁰⁾ 현대에 이르러서도 훌륭히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오스만의 도심녹지시스템의 구축과정은 다음의 몇가지 점에서 우리나라 대도시의 공원 및 녹지계획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공원녹지의 분포를 보면,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이 지역적으로 심한 불균형 현상¹¹⁾을 보이고 있으며 산림과 공원, 도로, 하천, 주택 등 각종 도시시설과 연계된 녹지의 연결체계가 잘 형성되어 있지 못하여 생태적 관리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오규식, 1999) 이와 대비할 때 오스만은 기존 녹지의 규모, 분포, 시민생활과의 밀접도 등을 분석하고 두 개의 숲과 3개의 공원 그리고 24개의 스퀘어를 체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기존 녹지망을 보완하며 도시 각 지역에서 균등한 녹지환경을 제공하여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갔다. 이는 오스만의 도심녹지시스템구축과정이 서울시의 경우처럼 녹지환경의 불균형과 연결체계 부재의 문제를 앓고 있는 대도시들에게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스퀘어의 출현은 오스만이 이미 도시내 일상적 근린공원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도시의 근린공원이란 기본적으로 주중이나 주말을 막론하고 시민이 보건, 휴양, 정서적 생활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시민의 생활공간 가까이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린공원을 계획할 때 근린주구 내의 주민에게 편리한 위치와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위치의 문제는 다른 조건들에 우선하여 더욱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이다. 한동안 우리나라 대도시에 유행했던 쌈지공원이 도심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이내 죽은 공간으로 버려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 것은 쌈지공원의 규모와 위치선정을 위해 토지 이용 계획 및 공원 녹지계획 안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역설한다. 이런 점에서 파리의 도심소공원인 스퀘어가 현재에도 파리시민의 일상과 지역미관을 위한 녹색오아시스로 훌륭하게 기능하고 있는 사실은 각 도시의 요충지에 전략적으로 위치하기 때문임을 앞서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본론에서 살펴본 순환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도심녹지시스템의 완성은 오스만의 계획에 있어 가장 독창적인 개념이라 말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19세기 중반 완결된 오스만 도심녹지시스템의 성공적 구축과정은 균등한 녹지환경제공을 위한 녹지정책의 논리, 스퀘어를 통한 일상적 근린공원의 제공, 사람과 교통의 순환시스템과의 연계와 이를 통한 네트워크적 작동성의 측면에서 현대도시가 도심공원을

포함한 녹지계획을 위해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녹지자연도를 기준으로 할 때는 영등포구가 0.2 수준으로 전국에서 최하위권임)

인용문헌

- 주 1. 규획화(R gularisation)라는 표현은 오스만이 그의 회상(Mémoires) 3권의 61 페이지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프랑수아즈 쇼에(F.se Choay)는 저서에서 '규획화란 무질서한 도시의 도식적인 레이아웃에서 새로운 질서를 끌어내는 것' 이라 쓰고 있다. (이명규, 1996: 38, 재인용)
 - 주 2. 오스만계획에 영향받은 독일도시와 바르셀로나에 대한 규획화의 평가는 쇼에의 견해에 따랐다. (이명규, 1996)
 - 주 3. 시카고계획에 대한 규획화의 평가는 바넷(J. Barnette)의 견해에 따랐다. (이정형, 1997)
 - 주 4. 오스만은 저서 회상록(Mémoires)에서 대중을 위해 고려된 숲 공원 스케어의 창조는 제 2제정시대 이전에는 거의 없었다고 쓰고 있다. (Hausmann, 1893)
 - 주 5. 쉬랑은 저서에서 알팡을 오스만의 녹색팔(Bras vert)로 표현하였다. (Surand, 1991)
 - 주 6. 에르누프(Ernouf)와 알팡(Alphand)은 당시의 스케어를 꽃과 수목으로 뒤덮인 녹색살롱(Salon vert)로 표현하였다. (Jarrass, 2002)
 - 주 7. 오스만은 회상록에서 도심요소로서의 스케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걸어서 500m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시에 골고루 흩뿌려져야 한다고 적고 있다.
 - 주 8. 오스만이 계획한 스케어들중 '템플스퀘어'(7.7ha)와 '부르생 자크스퀘어'(6.0ha)를 제외하고는 면적이 2.5ha를 초과하지 않았다.
 - 주 9. 파리 최남단의 봉수리 공원은 코티가(Av. Coty)와 이에 연장된 라스파일대로(Bd. Raspail)를 통해 순환동맥과 연결. (그림 8 참조)
 - 주 10. 로티는 파리시 도심녹지시스템이 19세기 중반 오스만의 파리 대개조를 통해 1차적으로 완성되었고, 파리시 도시계획 정책이 재정립된 1977년 이후 라 빌레트 공원(La Villette), 베르시 공원(Bercy), 시트로앵 공원(Citroen)을 설치하게 됨으로써 2차적으로 보강되었다고 쓰고 있다. (Lorti, 1994)
 - 주 11. 종로구의 경우 최대 11.2㎡에서 금천구의 경우 최소 0.2㎡ (단위면적당 녹지의 양과 질을 고려하여 원시림상태의 녹지를 10으로 보고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비교수치인
1. 김용하(1997) 시민이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도시공원이 필요하다. 문화도시문화복지 14호.
(<http://www.kcpi.or.kr/front/magazine01.htm?hosu=14>)
 2. 오규식(1999) 시민 삶속에 살아있는 공원. 문화도시문화복지 55호.
(<http://www.kcpi.or.kr/front/magazine01.htm?hosu=55>)
 3. 이정형 역(1997) 도시디자인의 근대사. Jonathan Barnette 서울: 도서출판국제.
 4. 이명규 역(1996) 근대도시. Françoise Choay The Modern City 서울: 세진사.
 5. Alphand, A.(1873) Les Promenade de Paris. Paris: Rochild.
 6. Beaujeu-Garnier, J.(1975) Nouvelle histoire de Paris: Hasard ou Prédestination?. Paris: Association pour la Publication d'une histoire de Paris.
 7. Dupont, P.(1868) Terrain du Parc Monceau. Paris: Bibliothèque historique de la Ville de Paris.
 8. Jarrassé, D.(2000) L'Art des Jardins parisien. Paris: Parigramme.
 9. Hausmann, G. E.(1893) Mémoires Tome. III, Paris: Victor-Havard.
 10. Hénard, E.(1909) Etude sur les transformation de Paris. Paris: Motteroz.
 11. Levedan, P.(1975) Nouvelle histoire de Paris: Histoire de l'urbanisme à Paris. Paris: Hachette.
 12. Lortie, A.(1994) Parc et Promenade de Paris: Le renouveau des promenade de Paris. Paris: Pavillon de l'Arsenal.
 13. Moncan, P.(1992) Les jardins du Baron Haussmann. Paris: Louvre des antiquaires.
 14. Pinon, P.(1991) Paris Haussmann: Le projet d'embellissement de Paris. Paris: Pavillon de l'Arsenal.
 15. Racine, M.(2002). Créateur de Jardins et de Paysages en France du 19ème siècles au 20ème siècle. Paris: Actes Sud.
 16. Surand, G.(1991) Paris. Haussmann: Haussmann, Alphand des Promenades pour Paris. Paris: Pavillon de l'Arsenal.

원 고 접 수 : 2003년 8월 31일
최종수정본 접수 : 2003년 10월 8일
3인의명 심사필